

# 헌법재판관 임명에 與野 반발...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 신인도·경제 고려 '절충안'  
"비서실 사표 수리할 생각 없어"

야권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여권 '8인 체제' 尹 빠른탄핵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나름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야권의 '연속 탄핵'을 막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뜻도 모두 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야 모두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024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일반·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국무위원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 이에 몇몇 국무위원과 회의 참석자들이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특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당연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일반·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상했으며, 헌법재판관 3인만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전날 오후 늦게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

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여야 모두를 달래기 위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동시에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이미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사유는 없으며, 여야 합의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속 탄핵을 막고,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다녀온 후 이같은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탄핵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인내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이 2명 추가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이럴 경우 탄핵 심판의 결론이 빠르게 날 수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남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명 보류된 헌법재판관 1인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집단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전남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최 권한대행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하는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입도 뺏기지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뉘우치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내란 세력과 한 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연간수출 6838억 弗 '역대최대'... 세계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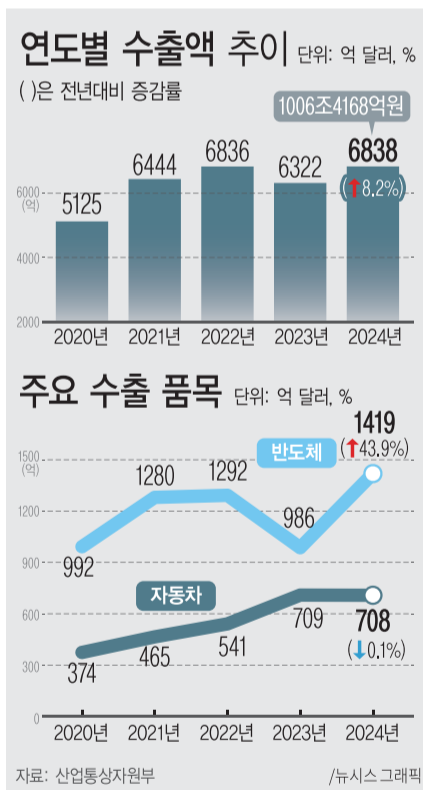
산업부, 2024년 수출액 8.2% 증가  
1~9월 WTO기준 순위 2단계 경중

작년 연간 수출액이 2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1~9월 누적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최고 실적은 2022년 6836억달러로 2년 전 최고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1~9월 WTO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했다. 9월까지 수출 상위 10대 국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순이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6% 감소한 6320억달러,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21억달러 개선된 518억달러 흑자다. 무역흑자는 2018년



(+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8개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를 기록,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특히 4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 5·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올해 전체적으로 분기별 수출이 우상향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 전 품목 수출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체 파업 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도와 보합세인 708억달러(-0.1%)를 기록,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되면서 두 자릿수(+18%) 증가한 256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수출은 480억달러로, 하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5.0%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 중심이었던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51억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달러(+7.6%)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은 102억달러(+20.6%)로 첫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코트라, 美 CES 최대규모 통합한국관 운영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개최  
삼성·LG·SK 등 900여개사 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현지시간 7일~10일 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인공지능)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들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

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55개 기업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한다.

또 통합한국관 참가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코트라-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산업부, 3개 규정 23건 개정·고시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

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뢰성을 인

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연간 1000만원)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 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메디컬 학과 수시미충원 198명... 69명 늘어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등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가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모집 인원 중 19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대 미선발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4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일 중도학원에 따르면, 메디컬 학과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이월 인원은 198명으로 지난해(129명)보다 69명(53.5%) 늘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각각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한의대 20명 등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는 2024학년도 43명에서 62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의대는 10명에서 2배로 늘었다. 단, 약대(지난해 50명) 치대(지난해 24명)는 미충원 인원이 각각 2명, 1명 줄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시 미선발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영향력은 경인지역과 서울권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24학년도 3명에서 2025학년도 29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7명에서 23명 ▲충청 16명에서 30명 ▲호남 2명에서 12명 ▲제주 0명에서 2명 ▲강원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ihj@